

제 6장 기독교: 정죄(condemnation)가 아니라 함께 아파함(compassion)

I. 주제 (Thesis): 기독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종교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다.

존 번연, <천로역정>: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이 많고 논쟁을 즐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물건들에 대한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매우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II. 저자가 지적하는 기독교의 문제점 (Problems)

1. 말, 말, 말: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성직자들은 선(善)에 관해 “말한다”. “메타소통” (말하기에 관한 말하기), 언어적인 넌센스와 침묵의 가치
2. 정죄함: 오늘 날 교회에서 변질된 예수의 모습, 신앙의 모습 - 분노한 제자들, 옳고 그름에 대한 신학적 전쟁,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두려움을 퍼뜨림. 정죄가 기독교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됨, 하지만 정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3. 정결법: 사회 정치학적 선긋기, 계급 세우기
4. “종교와 정치를 섞지 말라”는 주장들: 종교와 정치를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섞지 말라? 종교와 정치를 내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섞지 말라

III. 논점 (Argumentation)

1. 예수는 말보다는 행함의 본보기가 되셨다.
 - a. 진선미에 관해 말하는 것은 선하게 되고 미를 창조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과 같지 않다
 - b. 성직자들은 “행하는” 것의 본보기로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지만 선행에 관해 “말함”으로 보답을 받는다
 - c. 우리의 신앙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 d. 기독교는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행동해야 하는 종교이다.
 - e. 예수의 부르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마태 9:35-38), 제자들이 “파송된다” (10:5),
2. 하느님은 정죄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분이시다
 - a. 정죄 (condemnation)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compassion) - 정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예수의 본보기를 따른다는 것: 심판하기 보다는 예수를 닮도록 해방시킴, 함께 아파하는 마음 (compassion)을 품는 것
 - b. 예수는 치유받은 치유자(healed healer); 하느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 펼칠 의무 (gospel of present healing) - 고통분담, 상처회복, 무가치한 사람들을 세움, 모두를 환영 (all are welcome), 진정한 평등성 추구.
 - c. 예수의 목회운동 - 질문(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행동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숙제 (네 빛을 남들에게 갹아라)
 - d. 예수가 하느님을 본받는 방법 (Imitatio Dei) - 함께 아파함.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가 제시한 하느님의 모델 - 우리를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느님 - “암탉이 제 새끼를 낳게 아래 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13:34)
 - e. 신앙생활이 자장 중요한 도약- 자기 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중생), 두뇌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 진정한 종교적 움직임은 자기의 삶을 넘어 타인의 삶의 고통과 가능성 속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행동을 취하는 것
3. 하느님을 본받는 것은 정결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촉천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 a. 유대인의 정결법 -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됨, 모든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성결. 정결체제는 사회문화적 계급과 위치를 탄생시킴- 이스라엘 백성, 개종자들, 개자식들, 버림받은자들

- b. 농민운동가(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 - 정결법에 대한 정면 공격.예수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자비)과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 (정결)은 정면 대치되는 개념이었다. 당시의 정결법은 사회정치적 패러다임. 이에 대한 공격은 종교의 근본에 대한 공격
- c. 정결법을 비판한 예수의 선포들 :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 바리새인들을 빗댄, 불결의 원천, 막 7:15-16,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 5:8),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개방된 공동식사, 무상의 치유, 여자들과의 교제

4. 기독교는 지극히 정치적인 수 밖에 없다. 고로 나는 함께 아파하며 나는 투표한다.

- a. 교회는 육체와 영혼과 현실정치를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목회활동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정지적인 교전을 하지 않는 교회는 모순 자체다.
- b. 근본주의자들은 개인의 잘못을 정죄하느라 집단의 죄와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배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반대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근본주의의 주장) 과 여러고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덜 위험한 길이 되도록 하는것 (자유주의의 주장)
- c. 나는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자비를 보여 주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냈는가? 예수가 정결의 정치학 대신 자비의 정치학을 선택했다면 - 동성애 반대 세력들은 복음 자체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여자에 대한 비하 조차 없어야 한다. AIDS에 대한 분리 의식도 없어야 한다.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도 마찬가지..

저자의 분명한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아파하고 행동하라! 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킬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과 기꺼이 대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 대결 없이는 사랑이 단순히 열매없고 감상적인 동정이 될 따름이다. - 윌리엄 슬로언 코핀

IV. 생각해 볼 문제들

1. 생활방식 (a way of life) 으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특성이란 무슨 의미일까? 살아냄?
2. 예수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렇다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100 퍼센트 동의합니까? = 즉 100퍼센트 행동할 수 있습니까?
4.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예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몸속에 존재하는 고통처럼 느낄수 있는가?
5. [Here and Now] 예수는 치유의 기적들을 보일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주시곤 했다. 우리는 치유 받았는가?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면서 주신 우리 신앙의 숙제는 무엇일까? 예수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임을 고백한 우리는 현 시대에서 무엇에 관해 질문하고, 어떠한 행동하고, 무슨 숙제를 내야할까?
6. [Here and Now] 우리는 현 시대가 당면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빈부격차, 식락폭동,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탄압과 전쟁, 동성애, 불법체류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